

2023 November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10월 동향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교전 확대 가능성 등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쳤지만, 견조한 미 경기지표 등에 따른 추가 긴축 우려 경계감이 강화되는 영향 속에 국고채 금리 4%대 상향 마감

미 고용 관련 지표가 다소 부진한 양상 보인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의 중동 이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요인 등이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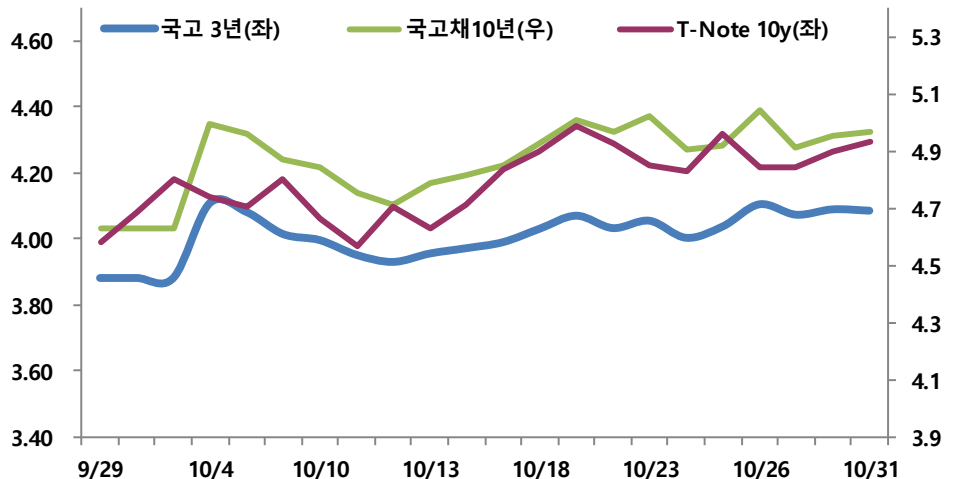
미 9월 CPI 시장 예상 상회에 따른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 우려 속 미 경제 지표 호조와 대내적 매파적 금통위 영향 반영되며 상승 지속

9월 미국 PCE의 감소 추세가 이어졌지만, 11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되는 가운데 4%대 상승 지속

- 월초, 미국 민간 고용 및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 증가 등 전반적인 고용시장의 냉각 분위기 속에 중동발 이슈의 안전 자산 선호 요인 등으로 하락 출발한 양상
 - 월 초, 미 행정부 섰다운 우려 해소 영향과 대내적 장기 국채 입찰 소화 등에 따른 수급 영향 반영 하며 국고채 금리는 급등세 출발
 - 이어 미 고용 관련 지표들이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 고조 등으로 하락 전환하는 양상 시현
- 중반, 미국 9월 CPI의 시장 예상 상회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반영으로 상승 전환 후, 미 소매판매 지표 호조 및 10월 금통위의 매파 영향 등으로 상승 추세 지속되어진 양상
 - 중반 들어, 미 9월 CPI의 시장 예상을 상회함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반영 속에 상승 전환
 - 이후, 미국 소매판매 지표 호조와 대내적 10월 금통위 결과의 매파적 해석에 따른 영향 반영 등으로 상승세 지속 시현
- 후반, 미 3분기 GDP의 월가 예상 상회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세에 연동 흐름 보인 후, PCE 상승세 둔화 속에 11월 FOMC에 대한 경계감 강화되는 가운데 4%대 상회하며 마감
 - 후반, 이스라엘-하마스간 전쟁 격화에 따른 일부 안전자산 선호 강화 움직임에도 미3분기 GDP 속보치가 4.9%로 시장 예상을 상회함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흐름에 연동
 - 이어 미국 9월 PCE 상승 추세가 둔화된 영향에 따라 하락 전환하였지만, 11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되는 분위기 반영되며 4%대 상회 속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10월 평균
국고채(3년): 4.02%
T-Note(10년): 4.93%



자료: 하나은행, 단위 %

11 월 전망

11월 FOMC 금리 동결 결정 등이 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견조한 미국 경제와 수급 요인 등을 반영한 미 국채 금리 상승세 연동, 한은 매파성향 반영 등이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평균	1Q23	2Q23	3Q23	4Q23
국고채(3y, %)	3.46	3.38	3.73	3.95 ^(F)

연준 긴축 장기화 가능성 언급의 유지 전망에도 최근 물가지표 감소세 지속과 일부 연준 위원들의 매파 성향 완화 등을 고려시 금리 동결기조 이저질 것으로 예상

중동 이슈 확산 시 유가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가 충돌하며 금리 방향성 혼재에 영향 미칠 전망. 반면, 미 국채 수급 요인에 따른 영향은 당분간 민감하게 국내외 금리에 영향 미칠 요인

11월 국고채(3Y) 금리는 3.95%~4.10% 예상

- 연준의 긴축장기화 시사 등에 따라 미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였으나, 11월 FOMC에서 주요 물가 둔화세를 반영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미 국채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 상승에도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연준 파월 의장의 높은 수준의 긴축 장기화 시사에도 주요 물가 지표의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측면 반영 등에 따라 11월 FOMC 회의에서는 기존 동결 결정 가능성이 클 전망
 - 여기에 최근 주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 성향이 다소 진정된 발언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점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국내외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중동 전쟁의 확산 조짐 시 안전자산 선호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지만, 미 재정적자와 국채 수급 관련 재료의 영향이 다소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이 소폭 크게 나타날 전망
 - 중동 전쟁 이슈가 주변국 확산 시 유가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 요인 상충 속 국내외 금리 방향성 혼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나, 현 상황에서 전쟁은 단지 장기화되는 수준에 머무를 전망
 - 반면, 미국 재정적자 이슈 등과 관련한 국채 수급 관련 재료의 영향이 미 국채 금리 급등에 구조적 영향을 이어갈 가능성 등이 국고채 금리 상방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최근 국내 산업생산, 제조, 소비 등 후반 들어 경제 모멘텀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은 통화정책이 연준의 연내 추가 1회 인상을 염두에 두는 상황에서 매파적 성향이 다소 우위에 있었던 점 등이 국고채 금리의 대내적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국내 경제체질 개선 흐름이 다소 강화된 가운데 연준의 연내 추가 1회 금리인상을 염두에 둔 한은의 전월 금통위의 매파적 성향 등의 반영이 국고채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통화정책 및 수급 영향 등 구조적 요인 등에 의한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동조화하는 움직임이 강화된 점도 국고채 금리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대한 추가 시사 가능성 · 한은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매파적 성향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예상 ·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 등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달러/원 환율

10 월 동향

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과 미 국채 수익률 상승세에 환율 상방 압력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주요국과 대비되는 연준 매파 성향 등에 상승 추세 지속

연준 통화긴축 불확실성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달러 강세 견인하는 가운데 환율은 1,360원대 진입했으나, 이후 Fed 인사들의 완화적 발언 소화하며 하락 전환

더딘 물가 둔화 속도와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상승 압력 속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과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세 등을 반영하며 1,350원대 중심으로 등락

견조한 미국 경제와 국채 수익률 급등세가 달러 강세 견인하며 환율 상승 압력 이어지는 가운데 ECB와 BOJ의 완화적 스탠스에 따른 유로화 및 엔화 약세 영향 등이 더해지며 1,350원대에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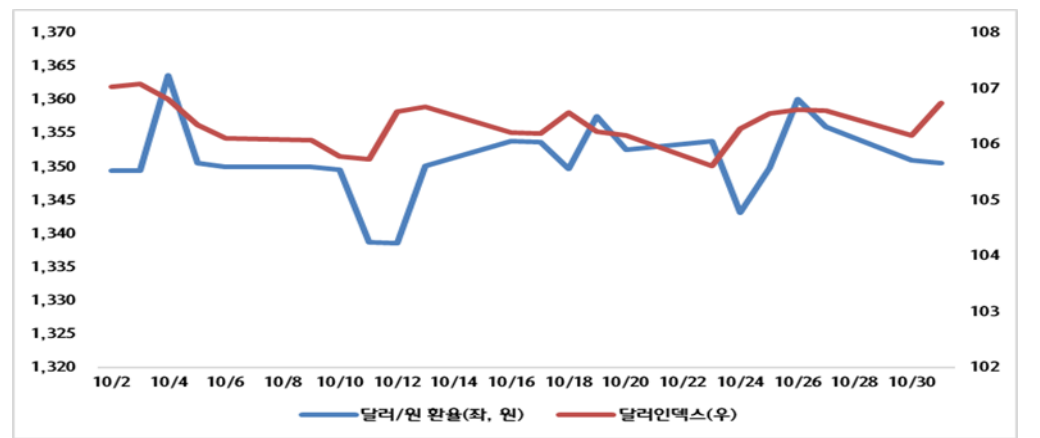
- 월초,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가능성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에 환율은 1,360원대 진입했으나 여전히 견조한 고용 상황에도 연준 관계자들의 완화적 발언 이어진 영향으로 하락 전환

 - 월초, 미국 근원PCE 둔화에도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스탠스 지속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 국채금리 상승세와 달러 강세 반영되며 환율은 1,363.5원까지 급등하며 연중 최고점을 경신
 - 미국 9월 고용지표 호조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에도 최근 긴축적 금융 여건 고려한 연준 당국자들의 연이은 비둘기적 발언과 한국 경상수지 흑자 소식 등에 1,330원대 후반 하락
- 월 중반, 인플레이션 경계감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와 급등한 미국 국채금리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되며 1,350원대 중심으로 상방 압력 지속

 - 중반, 미국 9월 근원CPI 둔화세에도 물가상승 압력 지속에 따른 긴축 경계감과 중동분쟁 확산 우려로 자극된 유가 불확실성 및 안전자산 수요 등에 환율은 상승 전환 후 1,350원 중심으로 등락 흐름 시현
 - 중국 3분기 GDP,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 개선에 위안화 가치 반등하며 하락 압력 받았으나,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후 급등한 장기채 수익률 영향 받으며 재차 상승
- 후반,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그에 따른 연준의 긴축 장기화 전망이 ECB와 BOJ의 비둘기적 스탠스와 대조되면서 달러의 전반적인 강세 흐름 속 1,350원대에서 마감

 - 후반, 긴축 장기화 전망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미 국채금리 급등세 다소 진정되며 환율 하락했으나, 조선업체 수주 소식에도 미 10월 PMI 개선과 ECB의 금리동결 등에 따른 달러 강세에 상승 추세 지속
 - 미국 3분기 GDP 4.9%로 경제 호조 재확인되었음에도 9월 근원PCE 둔화세와 BOJ 정책변경 기대 등에 하락했으나, BOJ의 YCC 정책 일부 수정에 대한 실망감 속 엔화 약세 반영되며 1,350.5원으로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하나은행

11 월 전망

연준 긴축 장기화 지속 의지에도 11월 FOMC 금리 동결 결정이 달러 강세 제한할 전망. 그럼에도 산재한 지정학적 이슈 및 주요 경제권 통화 약세 흐름 등이 상대적 원화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평균	1Q23	2Q23	3Q23	4Q23
달러/원 환율(원)	1,280	1,310	1,312	1,315 ^(F)

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감소 기조 이어지는 물가지표 등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다소 높은 측면은 달러 강세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

- 미국 경제의 연착륙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긍정적 고용 환경 등을 고려 시, 연준 긴축 장기화 영향이 국채금리 상승을 통해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하지만 최근 연준위원들의 매파 성향 기조가 다소 완화된 측면 등은 달러 상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 미국 물가지표의 감소세 속에서도 견조한 고용, 소비 결과 속에 3분기 GDP 호조 등에 따른 연착륙 가능성 등이 긴축 장기화 기조에 영향을 미치며 달러 강세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 반면, 제약적 긴축 수준에 대한 일부 연준위원들의 매파 성향 완화 언급 등을 고려 시, 11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결정 가능성이 다소 높을 전망은 달러 강세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다소 장기전화 할 가능성이 상존한 중동 이슈와 중국, 유로존 등의 경기적 요인을 통한 통화 약세 등도 달러 강세를 당분간 지지할 것으로 보임

- 중동 이슈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요인 상존 속 중국과 유로존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통화 약세 지속 요인도 원화 강세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며 1,350원대 전후 흐름에 영향 미칠 전망
 - 중동 전쟁 확산 위험 상존은 유가 상승 등에 영향 미치며 위험회피 강화 요인이나, 현 단계에서 제한적 장기전화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임에 따라 추가적 위험회피 강화에는 제한적으로 영향 미칠 전망
 - 여기에 중국과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통화 약세 요인도 소폭의 달러 강세 지지를 통해 상대적 원화 상승 견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환율 1,350원 전후 흐름에서의 등락에 영향 미칠 전망

11월 달러/원 환율
1,340원 ~1,360원 예상

- 대내적으로 수출 개선, 제조, 소비 회복 및 중공업 업체들의 수주 확대 등 실물경제 모멘텀 강화는 원화 약세 제한 요인으로 보이나 한은 통화정책이 연준과 다소 차별화되고 있는 국면 등이 대내 금리차 지속을 통해 원화 강세를 제한할 요인으로 예상
 - 대내적 수출과 제조, 소비지표 등이 개선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중공업체들의 수주 확대 등의 실물경제 모멘텀 강화 및 외환당국의 고점 수준에 대한 경계감 강화 등이 원화 약세 제한요인으로 판단
 - 반면 최근 국내 물가의 반등 가능성 상존 등에 따른 최종 금리 수준 유지 등에도 여전히 경기에 대한 고려 및 대외 통화정책 주시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은 연내 금리 동결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른 대내 금리차 영향 지속 등의 요인은 여전히 원화의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긴축 장기화 기조 추가 시사 가능성 · 중동 이슈의 추가 확산시 안전자산 선호 가능성 · 주요 중앙은행 매파적 기조 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연준 금리동결 가능성 · 원화 경제 모멘텀 다소 강화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11월 FOMC의 금리 동결 결정은 엔화 강제 지지 요인으로 보이나, BOJ의 기존통화정책 유지 속 미-일 금리차 확대 지속 등의 요인이 엔화 150엔대 상향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10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9.6
10월 엔/원 평균환율 : 903.1

11월 엔/원 예상범위 : 890-905원

- (엔화 동향)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로 인한 미-일 금리차 확대에 엔화 약세로 출발 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과 실개입 추정 영향 등으로 추가 약세 제한된 모습. 중반, 일본 PPI 둔화세와 그에 따른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가능성 등에 약세 흐름 지속. 후반, 예상치 상회한 도쿄 CPI와 일본 재무상의 경계 발언에 소폭 강제 전환하기도 했으나 BOJ의 YCC정책 수정이 비둘기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엔화 약세 흐름 가중되는 가운데 151엔 상회하며 마감
- (엔/원 전망) 연준 긴축 장기화 지속 의지, 경제 연락처 등에도 11월 FOMC 금리 동결 우세 영향은 달러 강제 제한 요인으로 작용이 예상. 그럼에도 일본내 물가 상승세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함에 따른 시장 통화정책 기조 변경 기대에도 국채 이자 부담 요인 등, 경기 활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현 정책 유지 결정을 한 영향 등이 엔화의 150엔을 소폭 상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또한 이에 따른 미-일 금리차 확대 가능성 요인도 엔화 약세 요인으로 예상
- 11월 FOMC의 금리 동결 우세 가능성이 소폭 달러 약세 견인하며 엔화 150엔대 하향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나, 남은 한차례의 추가 인상 가능성 등에 의한 매파 영향 상존은 달러 약세를 다소 제한할 전망
- 반면, 목표 물가 수준 상회에 대한 시장의 정책 변경 기대에도 현 정책 유지 결정과 이에 따른 미-일 금리차에 따른 엔 캐리 영향 등이 엔화의 150엔대 상향을 지지할 요인. 엔/원 환율은 BOJ의 정책 유지 FOMC 금리 동결 기대 등에 의한 달러 약세가 상대적 원화 강제 견인하며 890-905원 수준 등락 예상

유로/원 전망

유로존 물가지표가 다소 둔화하는 양상 속 경기적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영 하려는 ECB 금리 동결 기조로의 전환이 예상. 이에 따른 연준 매파 성향과의 차별화 인식 등이 유로 약세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10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564
10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27.1

11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90~1,420

- (유로화 동향)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로 ECB의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 가능성 대두되며 약세로 출발했으나 독일 경제지표 개선 등에 강제 전환. 중반, 여전히 건조한 미국 CPI에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지속되며 달러 대비 약세 흐름 보였으나 연준 인사들의 완화된 스탠스 반영하며 재차 강제. 후반, S&P의 그리스 신용등급 상향 조정 소식에 큰 폭의 강제 시현했으나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ECB의 금리동결 결정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등에 약세 마감
- 독일 3분기 경제가 시장 예상보다 둔화세가 완화하였음에도 최근 ECB는 여전히 경기 불안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국면. 이러한 경기적 측면과 최근 물가 감소세를 반영한 금리 동결로의 선회에 의한 연준 통화정책과의 차별화 영향 등의 반영 속에 유로화는 현 1.06 달러 수준 전후의 약세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경기에 대한 경계감 강화하는 ECB 통화정책이 연준과 차별화하는 점이 유로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
- 유로/원은 FOMC 금리 동결 영향과 경제 모멘텀이 상대적 우위인 원화 강제 속 1,410원대 흐름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3년 11월)

			1 미국 FOMC(10/31~11/1)	2BOE 통화정책회의	3	4
11월 주간 경제지표 미 주간 원유재고 [에너지 정보청, 매주 수] 주간 주택융자 신청자수 [MBA, 매주 수]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노동부, 매주 목] 30년물 고정 모기지 금리 [프래디터, 매주 목] 주간 소매판매 [매주 토]	11월 주요 ISSUE 미국 FOMC(10/31~11/1) BOE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11/2) RBA 통화정책회의(11/7) 중국 광균질(11/11)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11/13) MSCI 반기 리뷰(11/14) APEC 정상회의(11/15~17)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4) OPEC+ 정례회의(11/26) 한국 금융통화위원회(경제전망)(11/30)	미러보는 12월 주요 ISSUE RBA 통화정책회의(12/5) 미국 FOMC(경제전망)(12/12~13) 한국 선물, 옵션 등시 만기일(12/14) 코스피200, 코스닥150 정기변경(12/14) BOE 통화정책회의(12/14) ECB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12/14) EU 정상회담(12/14~15) BOJ 통화정책회의(12/18~19)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12/27) 한국 금융안정회의(12/28)	미국 FOMC(10/31~11/1) :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5.25~5.5%로 동결. 연준, 고금리 장기화 기조 이어나갈 전망 중국 정부, 폭연 수출 통제 시행 한 10월 수출/입동향(YoY -4.4%/ -16.5%) 미 9월 건설지출(MoM +0.5%)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9.61M) 10월 ADP 취업자 변동(89k) ISM 제조업, 구매물가, 고용, 신규주문	[BOE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5.25%로 동결 결정 (2) 지난 21년 12월 이후 14회 연속 금리 인상 이후 첫 동결. 추가 긴축 여지 열어둠 한 10월 CPI(YoY +3.7%, MoM +0.6%) CPI 근원(YoY +3.3%) 미 9월 CPI(YoY +3.7%, MoM +0.6%) 내구재 주문[F] 10월 Challenger Job Cuts(YoY +58.2%) 3Q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P](YoY +3.5%)	[유정] 일본(문외박) 미 10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33.6k) 실업률(3.8%), 경제활동 참가율 (62.8%) 시간당 평균 임금(MoM +0.2%) S&P 글로벌 서비스, 종합 PMI[F] ISM 서비스, 고용, 신규주문 중 10월 Caixin 종합, 서비스업 PMI 유 9월 실업률(6.4%)	유 10월 HCOB 제조업 PMI[F]
5	6 BOJ 9월 역사록 공개 유 10월 HCOB 서비스업, 종합[F] 11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21.9) 일 10월 지분 은행 종합, 서비스 PMI[F] 호 3Q 소매판매 전문기대비 (예상-0.4%/이전-0.5%)	7 RBA 통화정책회의 RBA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1%로 4연속 동결 한국 10월 금동위 역사록 공개 미 9월 무역수지, 소비자신용지수 중 10월 수출/입(YoY -6.2%/ -6.2%) 유 9월 PPI(MoM +0.6%, YoY -11.5%) 일 9월 가계 소비지출, 실질임금총액	8 지존일 미 9월 도매재고,도매무역 판매(MoM +1.8%) 유 9월 소매판매(MoM -1.2%, YoY -2.1%) 일 9월 동행지수, 섀넥지수[F]	9 옵션만기일 옵션만기일 미 9월 CPI(MoM +0.6%, YoY +3.7%) CPI 근원(MoM +0.3%, YoY +4.3%)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0.5%) 일 8월 핵심기계수주(MoM -1.1%,YoY -) 중 10월 PPI 전년비 (이전-2.5%)	10 미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P] 미시간대 1, 5~10년 인플레이션[P] 일 10월 통화량 M2(YoY +2.4%)	11
12 중 10월 신규주택가격 일 9월 핵심기계수주(MoM -0.5%) 10월 수출/입(YoY +4.3%/ -16.3%)	13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일 11월 1~10월 수출/입 (YoY -1.7%/+8.4%) 일 10월 PPI(MoM -0.3%, YoY +2.0%) 호 10월 CBA 가계소비 YoY (이전1.8%)	14 MSCI 반기리뷰, 미국 CPI MSCI 반기리뷰 한 9월 통화규모 M2(MoM +0.2%) 10월 수입물가(MoM +2.9%, YoY -9.6%) 수출물가(MoM +1.7%, YoY -8.9%) 미 10월 CPI(MoM +0.4%, YoY +3.7%) CPI 근원(MoM +0.3%, YoY +4.1%) NFIB 소기업 낙관지수(90.8)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0.5%)	15 APEC 정상회의(-17) APEC 정상회의(-17): 마-중 정상회담 가능성 한 10월 실업률(2.6%) 수출/입 확장지(YoY -4.4%/ -16.5%) 미 9월 기업재고(MoM +0.4%) 10월 소매판매(MoM +0.7%) 근원 소매판매(MoM +0.3%) PPI(MoM +0.5%, YoY +2.2%) PPI 근원(MoM +0.3%, YoY +2.7%) 11월 뉴욕주 제조업지수(-19.1)	16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미 10월 수입물가(MoM +0.1%, YoY -1.7%) 수출물가(MoM +0.7%, YoY -4.1%) 광공업생산(MoM +0.3%) 설비가동률(79.7%), 제조업 생산 11월 NAB 비주택시장지수(40) 캔자스시 제조업활동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17 미 10월 주택착공건수(MoM +7.0%) 건축허가(MoM -4.4%) 11월 캔자스시 연준 서비스업 활동 유 10월 CPI[F](YoY +4.3%), CPI 근원	18 중 10월 광공업생산YoY +4.5%), 소매판매(YoY +5.5%), 실업률(5.0%) 유 9월 산업생산(MoM +0.6%, YoY -5.1%) 일 3Q GDP[P](QoQ +2.7%, YoY 3.5%) 9월 광공업생산[F], 설비가동률
19	20 미 10월 섀넥지수(MoM -0.7%) 유 9월 건설생산(MoM -1.1%, YoY -0.1%)	21 한 10월 PPI(MoM +0.4%, YoY +1.3%) 11월 1~20일 수출/입 데이터 (YoY +4.6%/+0.6%) 미 10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0.02) 기준주택매매(MoM -2.0%)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22 연준 11월 FOMC 회의록 공개 미 10월 내구재 주문[F] 운송재의 내구재 주문[P]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F] 미시간대 1, 5~10년 인플레이션[F] 유 11월 소비자기대지수[P]	23 [유정] 미국(추수감사절), 일본(근로감사절) 유 11월 HCOB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F] 미 11월 미시간대소비자신뢰지수(이전63.8)	24 블랙프라이데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 추수감사절 다음날, 통상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연말까지 소비 최대 성수기로 불림. 미국 중시 조기 폐장(한국 시간 오전 3시) 미 11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 일 9월 섀넥지수[F] 10월 전국 CPI(YoY +3.0%) 국내 근원 CPI(YoY +4.2%) 11월 지분 은행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P]	25
26 OPEC+ 정례회의 [OPEC+ 정례회의] (1) 1년에 2회 진행되는 OPEC+ 정례 회의로 OPEC+의 추가 감산 여부 등 결정 (2) 사우디, 러시아는 연말까지 자발적인 감산 이어갈 입장. 감산 기간 연장 여부 주목	27 미 10월 신규주택매매 11월 델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중 10월 산업생산, 광업기업이익 일 10월 PPI 서비스 일 10월 소매판매 주택착공건수, 광공업생산 11월 소비자기대지수	28 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3Q 주택 가격 구매지수(QoQ +1.7%) 9월 FHFA 주택가격지수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경기연황 델라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29 Beige Book 연준 베이지북 공개 한 12월 기업경기조사 비제조업 제조업 미 3Q GDP, 개인소비 10월 도매재고[P], 소매재고 개인소비지수, 실질 개인소비 유 11월 소비자, 경기기대지수 산업, 서비스기대지수	30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5.5%로 6연속 동결.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망 불확실성 확대 (2) 올해 마지막 금동위, 연준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 한국 은행 동결 기조 이어질지 주목 한 10월 광공업생산 미 10월 PCE, PCE 근원 디플레이터 중 11월 종합, 제조업, 비제조업 PMI 유 10월 실업률, 11월 CPI, CPI 근원 일 10월 산업생산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